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 (2)*

— 『미망』을 대상으로 —

안 숙 원**

1.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여성적 관점
2. 『미망』과 '섬'의 크로노토프
 - 2.1 토포필리아로서 기억의 서사
 - 2.2 '섬'의 크로노토프
 - 2.3 인삼과 여성의 호몰로지
 - 2.4 여성에 의한 가업 계승
3. 맺음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50-A00015)

**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박완서의 『미망』은 19C말에서 한국전쟁까지 공적 역사와의 상호관련 속에 여성에 의한 가업계승을 중심서사로 하는 여성가족사소설이다. 이 작품도 『토지』, 『혼불』처럼 가족을 통해 민족을 서사화하는 만큼 가계 연속성에 대한 욕망이 민족주체성 욕망과 동일시, 자궁-집-나라의 크로노토프가 아이-가족-민족에 등가관계를 이루고 있다.

『미망』은 실험민작가 박완서의 고향 개성에 대한 토포필리아로서 기억의 재현이기도 한데, 고려인삼과 개성상도가 스토리의 두 축이다. 플랫폼위에서 개성에 중요한 사건이 집중되어 지역주의와 서사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섬'의 크로노토프를 형성한다. '섬'의 크로노토프는 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섬의 시간대란 뜻으로, 이는 구체적 실체인 '섬'과 기호학적 범주의 '섬'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인 강화도는 인삼 재배지 개성의 복사판이며 후자의 '섬'은 개성의 로컬리티를 가리킨다.

또한 『미망』은 인삼 생태주의 비평의 대상이다. 이 소설에서 인삼은 여성신체와의 도상적 호몰로지(homology) 때문에 여성을 은유하기도 하고 '고려인삼'이 지칭하듯 민족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곧 '인삼장'에서의 소련군 장교를 접대하는 기생향음이나 '기생삼'따위 인삼수난은 여성신체의 훼손과 맞물려 인삼=여성=민족의 유추관계에 있다. 인삼과 더불어 다른 하나의 스토리축인 개성 상도는 조부→손녀로 이어지는 동해랑 전처만가의 손녀 태입에 의해 수행된다. 가문이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업에 의해 계승된다는 점에서 『미망』은 다른 여성가족사소설과 변별성을 갖는다.

핵심어 : 바흐핀, 크로노토프, 『미망』, 여성가족사소설, 토포필리아, 기억의 서사, 지역주의, '섬'의 크로노토프, 개성인삼, 개성 상도, 가업계승.

1.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여성적 관점

본고는 카니발 트릭스터나 우리 민담의 도깨비가 특유의 크로노토프를 갖고 있듯이¹⁾ 여성도 그 나름의 크로노토프가 있어 이를 여성서사체²⁾들이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바흐친의 소설이론인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내적 연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³⁾로 소설 속에서 서사의 매듭이 맺히고 풀리는 장소, 곧 재현의 중심을 가리킨다.⁴⁾ 서사가 진행되는 장소를 의식할 수 있는 지점이 크로노토프이다. 다시말해, 특정시간/공간 속의 공간/시간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간예술인 서사체를 공간이나 장소에서 파악하도록 한 것은 바흐친의 민주적 디스코스론⁵⁾이 더해진 소설시학의 확장이다. 물론 그의 크로노토프는 구체적 리얼리티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호학적 차원에서 카니발의 구조적 원리를 의미하기도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다. 진행 중의 공간이나 경계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공간은 일단 크로노토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자궁은 무덤과 더불어 시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근원적

1) 바흐친은 카니발 트릭스터가 악한, 광대, 바보의 세 유형으로 광장, 구경거리, 비유적 언행 등 특유의 크로노토프를 갖는다고 했다. 우리의 도깨비도 반인간, 반신적 존재로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지니고 밤의 시간대에 출현하는 독특한 크로노토프를 갖는다.

2)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1)」,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3, p.208.

3) M.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p.84.

4) Ibid., p.250.

5) 바흐친의 디스코스론은 “언어는 권력투쟁의 장”이라는 언어기호학의 전제 아래, 중세 카니발 축제현장 같은 뒤집혀진 위계질서 속에 마구 대거리하는 민중언어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담론의 민주화, 반문화적인 삶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크로노토프(Ur-chronotope)⁶⁾이다. 여성이 자기 몸 안에 타인을 키우는 자궁을 가지고 있다 하여 R.긴스버그는 크로노토프를 여성 육체의 기호학(somatic semiotics)⁷⁾이라고도 말한다. 또 시간형식에서 크로노토프는 시간의 흐름이 파괴가 아니라 번식과 수확을 늘리는 변화와 교체의 주기적 리듬이라는 자연의 순환법칙임을 인식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크로노토프의 여성적 관점은 텍스트에 전경화된 집과 가족 등 젠더공간이며 신체하부의 긍정, 임신, 출산 따위 여성적 원리를 통해 인식되는 삶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⁸⁾ 집과 가족에 걸쳐 ‘안사람’이면서 ‘바깥사람’인 여성의 모순등가성, 이같은 여성적 크로노토프는 여성가족사소설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한국 현대 여성가족사소설들은 남성가족사소설이 소홀히 한 모계혈통을 중시하고⁹⁾ 민족사적 위기에 맞서 남성을 대신해 가족을 지켜냄으로써 나아가 민족지킴이 구실을 다한 여성을 초점화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¹⁰⁾ 즉 한국 현대 여성가족사소설들은 가계와 민족 주체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궁→집→나라의 크로노토프가 아이→가족→민족과 등가관계를 이루며 서사적 추동력을 발휘,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 변화와 교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자궁과 집안얘기라는 것이다.

박완서의 『미망』 역시 19C말 개항기에서 한국전쟁까지의 공적 역사

6) Ruth Ginsburg, "The Pregnant Text. Bakhtin's Ur-Chronotope : The Womb", *Critical Studies*, (ed), Myriam Diaz-Diocaretz, Amsterdam-Atlanta, GA, 1993, p.166.

7) Ibid., pp.170~171.

8) 안숙원, 위의 논문, p.208.

9) 『토지』에선 윤씨가 천주교도 집안 출신이며 별당아씨는 서울 양반가문 출신이다. 『미망』에서 태임의 모친 머릿방아씨는 전처만의 친구 손씨의 딸이고, 『혼불』의 청암부인은 청암에서 시집 온 경주 김씨이다. 또 강모와 결혼한 효원은 대실 허담의 딸이다. 대표적 남성 가족사소설인 『삼대』엔 조의관의 본처와 아들 상훈의 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10) 위의 논문, p.212.

를 관통하는 여성가족사소설로서, 서술층위에선 기억의 재현이지만 플롯층위에서 개성 중심의 서사공간으로 인해 폐쇄적인 '섬'의 크로노토프¹¹⁾를 형성한다.

2. 『미망』과 '섬'의 크로노토프

2.1 토포필리아로서 기억의 서사

서사는 시간의 양각작업이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기억은 속절없이 스러져간다. 인간의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덧없이 흘러보낼 수 없다는 우리들의 이야기 욕망이 서사양식을 창조한 것이다. 박완서의 장편 『未忘』은 제목 그대로 호모 나란(Homo-narran)으로서 내러티브의 속성 자체를 소설화한 작품이다. 박완서 소설의 기억을 문체론적으로 논의한 황도경¹²⁾, 소설의 회상형식과 결부시킨 김윤식¹³⁾, 서술방식에서 검토한 이선미¹⁴⁾, 기억의 이미지 차원에서 색/맛의 대립을 통한 주제 의식 변모를 검토한 이선옥¹⁵⁾ 등 팔목할 만한 논문들도 기억이 이 작

11) 섬 자체는 물리적인 장소일 뿐이지만 여기에 의미있는 시간이 걸치면 독특한 크로노토프의 공간이 된다. 이청준의 「이어도」, W.폴딩의 『파리대왕』 등은 섬의 크로노토프가 부각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부산 영도의 작은 섬 조도에 위치한 해양대 김정하 교수는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면, 조도는 섬이 아니라 바다에 뜬 배의 갑판같기도 하고 해무가 자욱하게 깔린 날, 밖에서 보면 섬과 캠퍼스 전체가 사라지는 일도 있다고 했다.

12)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이화어문집, 1994).

13) 김윤식, 「박완서론-기억과 묘사」, 『작가와와 대화』(문학동네, 1996).

14)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연대 박사논문, 2000.12), pp.7~8. 이 논문은 박완서에게 기억은 창작 동기이지 방법론이 아니라면서 서술방식을 통한 인물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5) 이선옥, 『한국소설과 페미니즘』(예림기획, 2002), p.194.

가의 중요한 소설시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완서식 기억의 서사는 언술층위에서 애기된 시간을 단축하고 서술독백(narrated monologue)과 소급제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작가는 식민지 경험과 해방기의 혼란에 이어, 6.25전쟁으로 월남, 오빠를 잃은 개인사 등을 작품소재로 삼아 과거의 기억을 집요하게 천착하는데, 그녀의 작중인물들에게 억압된 체험의 기억은 작가의 이야기 충동에 밀려 수면 위로 드러난 상처의 진술이 많다. 프로이트는 상처조차도 강박적으로 되풀이 기억함으로써 치유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기억하기는 상처의 고통을 이야기하기=소설쓰기=상처의 치유에 다름 아니다.¹⁶⁾ 작가 박완서는 기억의 '내용'과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서사론(narratology)을 개진하는 것이다. 『미망』의 경우, 전자는 실향민인 그녀의 고향 개성에 관한 행복한 추억이고 후자는 언술층위에서의 기억의 디스크스이다. 『미망』의 서술층위에서 기억의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① 태임을 달래고 어르고 비위를 맞추느라 한 긴 말이 모조리 헛수고였다든 쓸쓸한 후회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헛 산 것같은 커다란 허망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풀이람. 그렇게 열심히 이악하게 산 끝에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움켜쥔 건 구슬프고 외롭고 힘없는 늙음밖에 없나니.¹⁷⁾

② “자네가 날 혼계할 셈인가?”

아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식이, 제까짓 게 혼계를 안 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쯤은 아까부터 하고 있었던 바였다…… 어머니의

16) 안숙원, 「전화텍스트와 역동적 수화자」, 『현대소설시점의 시학』(새문사, 1996), p.590.

17) 박완서, 『미망』 상(세계사, 1997), p.101.

본고에서 인용하는 텍스트의 본문은 이 세계사본(상, 하권)으로 한다.

결정적인 파멸을 가져온 돈케, 관옥같은 아이와 함께 공평한 분재 외에 따로 덩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여직껏 생계와는 따로 관리돼 왔다…… 아씨는 어찌면 태남을 데려다 곁에 두고 그 성장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따로 관옥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태남이도 시방은 아씨 곁에 없다…… 그녀에겐 지나치게 벅찬 것을 넘겨주고 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분의 관옥같은 아이에 대한 불가해한 집착은 혼동이었을까, 노망이었을까, 아니면 참회였을까.¹⁸⁾

위 인용문 ①은 전처만이 어린 손녀 태임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무기력과 고적감을 토로한 말을 서술자가 대신한 것이며, ②는 인삼 일꾼 산식의 입장에서 호명된 ‘아씨’태임에게 산식이 인삼제품 개발을 건의하는 장면인데 태임이 그를 대하는 오만한 태도며 그녀의 의식에 떠오르는 조부 전처만, 어머니 머릿방 아씨에 대한 회상, 지금은 만주로 떠나고 없는 태남에 대한 어수선한 생각들이 동시에 서술된 것이다. 게다가 ①의 ‘이게 무슨 꼴이람.’은 환갑이 지난 전처만의 말투치고 그의 체통에 어울리지 않는 내적 발화이다. ②에서 ‘아씨’로 지칭하는 사람은 산식이고 ‘그녀’로 지칭하는 발화자는 서술자인데 뒤이어 나오는 ‘그분’은 태임이 조부를 일컫는 말로 호명주체가 산식→태임→서술자→태임으로 인물과 서술자를 넘나들고 있다. 산식과 태임의 언어적 위계질서로 간신히 발화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같은 문맥에서 세 번이나 동어반복되는 ‘관옥같은 아이’는 머릿방아씨의 사생아 태남에 대한 전처만의 명명법인데 서술자와 태임에게 거듭된 것은 서술자와 인물의 가치관이 일치함을 나타낸다. 결국 이 아이가 자라 태임과 더불어 인삼지킴이가 된 태남이니 전처만은 태남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밖에도 『미망』에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토로하는 발화들이 시

18) 위의 책, 하권, p.95(굵은 활자로 된 부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점의 이동을 통해 끼어드는 서술독백이 많다. 예컨대, ④이대로 죽어버렸음.(해주덕) ⑤나이값을 해야지.(전처만) ⑥ 환장을 해도 분수가 있지.(머릿방 아씨) ⑦하필이면 지금 나오려고 하다니.(머릿방 아씨) ⑧ 세상에 말 못할 독종같으니라구.(홍씨) 등등. 여기서 ④를 제외하곤 이런 언술들은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적 독백이다. 이들의 발화맥락도 다르고 자유초점화¹⁹⁾에 의한 초점주체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목소리의 어법이란 점에서 사실은 내포작가가 원격조정된 서술자의 언술이다. 이처럼 내놓고 말하기 민망해서 은닉된 발화²⁰⁾들은 타인의 말에 반응하고 대답하거나 그 말을 예상함으로써 텍스트를 대화적 언술이 되게 한다. ④는 해주덕이 전처만과의 정사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절정의 순간에 중얼거린 귓속말인데 전처만은 일본인들에 의한 인삼도채가 성행한다는 소문에 장차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며 울적한 마음으로 밤중에 불현듯 강릉골로 해주덕을 찾아갔던 것이어서 그녀의 엑스터시성 발화는 상황적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⑤는 머슴 종상이 일본인 인삼도독을 붙잡으려다 억울하게 관가에 고발당해 몰매를 맞아 다 죽게 된 걸, 태임이 문병한 것 때문에 전처만은 녀 달걀 금족령을 내렸다가 사랑채로 불러냈지만(여성의 사랑방 출입이 금기시되던 당대의 관습상 파격이며 이는 장차 태임이 가업계승의 상속자임을 예시하는 크로노토프이다.) 그녀가 여전히 당돌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말, ⑥은 머릿방 아씨가 친정집 머슴 재득과의 정사를 돌이키며 하는 말, ⑦은 머릿방 아씨가 시어머니 홍씨의 껌에 빠져 돈케를 옮기다 염불이 빠지는 다급한 순간의 표현, ⑧은 홍씨가 신성시하는 우물에 투신자살한 며느리에게

19) S.S. Lanser, *The Narrative Act*, Princeton Univ., Press, N.J., 1981, p.214.

20) M.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 & trans), Caryl Emerson,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197.

분노하며 내뱉는 말이다. 초점화된 인물의 감정투영체 발화(토막문장을 포함한 구어체)로 서술자는 기억의 현재화에 수화자(narratee)를 끌어들이면서 문체의 탄력성을 살리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인물의 발화이나 형식논리상 서술자의 말인 중간접화법(quasi-indirect discourse)인 서술독백에 의해 인물 개개인의 발화를 대신한 서술자가 인물의 직접 대화 상대역이 아닌 수화자를 겨냥한 대화적 관계로, 경계침범의 언술이다. 그런데 위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중인물이 양반이든, 상민이든, 머슴이든,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내적 독백의 말투는 발화자의 체통이나 교양과 상관없이 비속하다. 그리고 인물들의 언술은 생생한 구어체인데도 그것들을 대신한 서술자의 동일한 어조라서 무척 단조롭게 느껴진다. 이런 발화들은 기표상의 젠더는 없지만 서울 중류 계층 여성의 언어로서 그에 따라 수화자 역시 같은 범주의 젠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박완서가 여성작가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인 동시에 섬세한 심리묘사와 속도감 넘치는 문체를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초점주체가 종횡무진 이동하며 감정투영체 발화를 내뱉는 서술독백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박완서의 작가적 개성으로 평가²¹⁾되지만 요설체의 수다라는 곱지 않은 비판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갈등의 서사소(narrativity)로서 작중인물들의 분풀이, 앙갚음은 R. 지라르의 이른 바 삼각형의 욕망²²⁾에 해당될 것으로 이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정서적 고양감을 만끽하기보다 씹쓸할 때가 많다. 아마도 박완서는 인간이란 속내를 알고 보면 다 그렇고 그렇다는 속물적인

21)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실천문학』(2000.가을호), p.78.

22) R. 지라르, 김치수 역, 「삼각형의 욕망」,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사, 1981), p.189.

지라르는 현대인의 욕망이 주체-대상간의 순수한 욕망이 되지 못하고 중개자에 의한 간접화된 욕망임을 지적했다. 『미망』에서도 전처만의 성취동기는 종상의 조부 이생원에 의해, 태임의 가업계승은 분열에 의해, 박승제의 종상 적대시는 태임의 부와 미모에 의한 앙갚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한다. 하기가 6.25 동란 중 오빠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반동분자로 몰리게 될까 봐 '꿀각 삼켜버린'²³⁾ 가족사를 지닌 작가로선 진지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기억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기억에 관한 한, 좀체 행복한 추억이 없는 것같던 박완서가 그녀의 고향 개성의 풍물을 복원하고자 한 『미망』은 원초적 공간에 대한 향수로서 토포필리아(topophilia)를 보여준다. 그러나 토포필리아란 장소애는 이푸 투안의 말대로 워낙 공간적 격절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²⁴⁾ 이 작가의 송도예찬(송도냄새, 송도소문……)은 『미망』의 플롯 층위에서 지역주의와 서사공간의 폐쇄성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개성이라는 장소에 중요한 시간이 집중된 '섬'의 크로노토프이다.

2.2 '섬'의 크로노토프

『미망』은 작가 박완서로 하여금 일상성에 경사된 소설가라는 시각의 폭좁음²⁵⁾을 불식시키고 역사의 총체성을 살핀 작품이란 점에서 작가적 전환점을 보여준 소설이다. 이 작품이 근대사회에로의 역사적 이행이라는 문제를 정면에서 탐구한 몇 안 되는 한국소설 가운데 하나²⁶⁾라고 하나 고려인삼과 개성상훈이라는 『미망』의 지역주의는 플롯 층위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배타적 서사공간 속을 운행하게 된다. '섬'의 크로노토프는 섬 자체가 지리적 자연환경이지만 그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섬의 시간대라는 뜻으로, 이것은 구체적 실체인 '섬'과 기호학적 범주의 '섬'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구체적 실체로서 '섬'인 강화도는 인삼재배지로서 개성의 복사

23) 박완서, 「부처님 근처」, 『문학동네』(2003), p.88.

24) 이푸 투안,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도서출판 대운, 1999), p.7.

25) 정호용,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1991.봄호), p.63.

26) 이동하, 「근대화의 문체와 소설적 진실」, 『작가세계』(1991.봄호), p.92.

판이다. 6.25전쟁으로 작중인물들 중 일부는 개성을 떠나 서울, 부산, 등지에 정착하게 되고 경우와 경국이 묘사를 옮겨 심기로 한 곳이 강화도이다. 그것은 인삼의 특성 때문인데 강화도는 까다로운 인삼 재배지로 선택된 공간인 점에서 개성과 동일한 곳으로 간주돼 서사는 고립성의 한계²⁷⁾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때 강화도나 개성은 단순히 소설의 배경이 아니라 플롯에 참여하는 악당들이며²⁸⁾ 이들 토포그라피(topography)는 사건의 계기로 작용하는 서사적 참여자 기능²⁹⁾을 하는 공간이다. 이쯤 되면 플롯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러기에 『미망』은 인삼 생태주의 내지 에코페미니즘의 비평 대상이기도 하다.³⁰⁾ 『미망』은 인삼의 생태학적 보고서라고 할만큼 인삼에 대한 묘사가 풍부한 것은 물론 인삼=여성의 호몰로지(homology)로서 그 서사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호학적 범주의 '섬'은 개성(송도)이라는 지역성에 내포

27) 신덕룡, 「고립된 폐쇄주의, 그 비극적 결말」, 『동서문학』(1991.1월호).

28) 김열규, 「토포스를 위한 새로운 토포로지와 시학을 위하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20호(2003.9월호), pp.6~19.

29) Ibid., p.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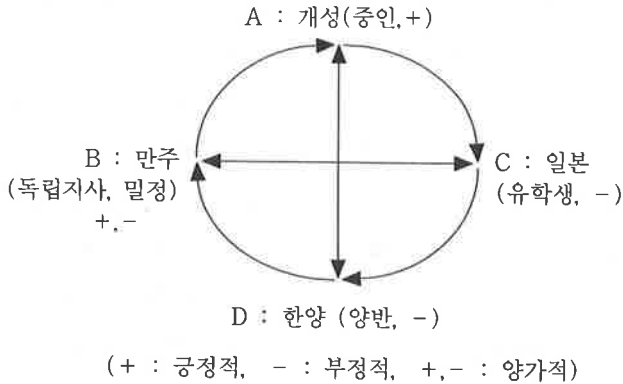
30) 필자가 『미망』을 생태주의 비평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뷰엘(L. Buell)의 생태비평의 네 가지 기준인 ①자연을 대상이 아니라 현존으로 인식할 것, ②인간의 이익이 유일하게 합법적이란 생각을 버릴 것, ③환경에 대한 책임이 텍스트의 윤리적 방향을 결정인자로 작용할 때, ④환경의 의미가 텍스트에 내포된 불변의 상수나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인식할 때를 가리키는 것에 따른 것이다.(Lawrence Buell, *Environmental Imagination*, Harvard Univ. Press, 1996, p.97) 여기에 관해선 안숙원, 「바흐전, 생태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12호), p.27 참조.

또한 생태론과 페미니즘을 접합시킨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대체로 합의된 사항은 ①자연과 여성의 이미지 동일시(목가적 낭만적 대상이 아닌), ②여성노동영역을 재생산으로 설정(생명의 생성과 순환), ③남성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의한 자연과 여성 억압 비판, ④이분법적 가치관과 인간중심주의 극복, ⑤지속가능한 개발논리 탈피 따위, 다양성을 전제로 한 관계성과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공생), 대지적 모성원리를 보살핌의 윤리로 제시하는 대안문화이론이다.

된 비유적 공간을 가리킨다. ‘개성사람’하면 임진강, 예성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괄해서 일컫는데 그들은 이조 양반에 대한 반골기질과 양반보다 돈의 세도가 더 무서운 개성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와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대륙의 바람을 의미하는 ‘송도냄새’와 상인의 입지전에 관한 ‘송도 소문’으로 압축된다. 고려가 망하고 천 년이 지났건만 개성사람들의 마음의 서울은 여전히 송도였기에 그들의 송도예찬은 자주적이고 텃세가 센 기질로 이어졌다. 개성사람들이 덕물산 최영장군 사당에서 도당굿을 할 때 먹는 도당고기가 제일 맛있는 돼지고기라는 것도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겨룬 비운의 장군 최영을 기리는 것이 곧 고려왕조를 기리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국제무역도시로 번성했던 송도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라 안의 물자와 돈이 집산하는 전국 최고의 상업도시였고 송상은 최고 상술의 소유자들이었다. 송상, 경상 등의 독점상업자본이 생산자인 농민의 우위에서 농민에게 불리했던 당시의 나라경제 실상이야 여하튼 간에 개성사람들에겐 적어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개성에서 생산되어야만 ‘고려인삼’일 수 있다는 태남의 말처럼 개성중심의 지역주의로 인해 『미망』의 플롯은 개성→한양→만주,일본→개성(강화도)으로 인물의 행동반경을 수렴하는 구조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도식 1>과 같다.

<도식 1>에서 보듯 개성/한양이 고려/조선의 통시적 대립과 만주/일본의 공시적 대립을 아우르면서 작중인물들은 각각 그들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지역성을 대표하고 있다. 예컨대, 개성은 걸치레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곳, 특산품인 인삼을 중심으로 상업중심지다운 활기가 넘치면서도 기품이 서린 곳, 아름다운 고도 은빛 모래땅(+)이었다. 송상은 진열장에 상품을 화려하게 전시하지 않고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며 거래는 환거래로 결제하는 것이 개성상도였다. 개성상도란 ‘세상이 아

〈도식 1〉



무리 달라져도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방어해가며 독자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성상인의 상술을 가리킨다.³¹⁾ 이 성이가 그것을 어기고 일본인들의 인삼 밀반출에 협조했다 해서 전치만이 부자의절을 선언한 지 5년, 전치만은 그토록 경원하던 한양과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망국의 징조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이종상도 신식교육과 독립신문을 통해 개화사상에 심취, 개성상인의 배타성을 깨닫는다. 반면, 한양은 ‘은빛 모래가 빛나는’ 개성과 대조적으로 ‘검은 흙’의 도시이다. 그러나 한양에 양반만 사는 것은 아닐진대, 개성사람들이 한양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주로 조선 사대부들이나 양반이나 친일파인 박승재같은 인물이 표적이다. 전치만의 사후, 동해랑을 상속한 분열이가 서울에서 신여성과 첩살림을 하고 이성이나 부성이까지도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는 것, 등은 서울의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강화한다. 또 만주에는 독립지사들과 밀정으로(+,-), 독립운동가인 진동열 선생을 흠모해 만주로 간 태남이 진달래와

31) 『미망』, 상권, p.304.

결혼, 독립운동에 투신하는가 하면, 승재의 꼬나풀 마도섭³²⁾은 어수룩한 핫바지 차림으로 조선인들에게 접근하는 밀정이어서 정체가 쉬 탄로나지 않는다. 한편 만주는 종상과 태임에게는 독립지사들이 활약하는 ‘꿈의 고장’, ‘의인의 땅’으로 인식되지만 경우에겐 독립운동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껴서인지 민족주의에 강박된 땅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사실 일제 강점기 독립지사들에게 화수분처럼 군자금을 제공해야 했던 국내의 상업 부르주아들이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자신들의 거금을 쾌척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금기시해 왔던 독립운동사의 이면을 작가 박완서가 비판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망』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그다지 많이 서술하지 않은 것도 『토지』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것은 여성가족사소설들이 민족을 서사화하되, 여성인물들의 반응에 더 주목한 결과이자, 두 여성작가의 정치적 허무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경박한 유학생들의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경우가 일본인 화학공장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선진기술을 배우고는 있지만 주로 유학생들의 활동무대로 그려진다. 이 곳엔 신여성과 결혼하는 경박한 유부남이 대부분이다. 여란과 상철의 결혼도 그러한데 두 사람은 창씨개명 전에도 일본식 호칭을 사용하는 등, 피식민주체로서의 자각이 없을 뿐더러 제국에 대한 모방심리로 일본에 매혹된 사람들이다. 여란은 그 시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랬듯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유학을 가선 유부남 상철과 동거하다 개성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

32) 『미망』의 마도섭은 박완서가 창조한 밀정으로서 꺾진한 리얼리티를 갖는다. 그는 ‘큰 악이 작은 선에 가리어 잘 드러나지 않는’ 속물적 인간의 전형이다. 그는 박승재가 종상을 흠집내려고 과격한 밀정이면서 태남과 혜정을 중매시키기도 하고, 꺾박받는 간도 조선인을 위해 주재소를 드나든다. 바지 저고리차림의 순박한 그의 모습에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못할 짓도 없는 속물이다.

에서 살게 된다. 상철 본처의 이혼 동의로 정식부인이 되고 나서도 여란은 여전히 첩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태임도 여란에게 격렬한 적의를 드러내 모녀사이의 끝내 균열되고 만다. 개성사람들의 실용적 사고방식도 자유연애 풍조나 일본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무척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망』의 내포작가는 개성의 로컬리티가 표방하는 중인계층의 상인들이 한양으로 대표되는 양반, 지식인들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얘기한다. 즉 당대 양반 관료들의 부패와 권위주의, 실속없이 관념적이고 허황한 성리학적 질서를 비판하는 기제로 개성상도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업 부르주아지가 양반, 지주들의 중세적 신분사회를 붕괴시킨 점에서 개성상도에 관한 한, 도덕성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지 전처만을 비롯한 중인계급의 모랄이 반드시 인간적인 것은 아니다.³³⁾ 속물성을 특성으로 하는 그들의 의식수준은 교활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예가 전처만이 종손을 보겠다고 친구의 딸인 머릿방아씨와 부실한 장남을 정략결혼시켜 결국엔 아들의 수명을 단축하게 한 사건과 흥씨의 며느리 구박, 태임의 박승재 방문, 등이다. 물론 전처만은 평생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으로 떳떳하지 못해 하며 그녀가 낳은 사생아를 위해 '태남'이란 이름까지 지어주고 보살피는 상식밖의 애정을 기울이기는 한다. 흥씨 역시 소문난 음식솜씨로 설날엔 맛, 색, 기명이 어울린 '작은 꽃밭같은' 설상을 차려 동해랑의 차인들에게 일일이 독상을 내리는 알뜰한 살림꾼이었

33) 박연경은 『미망』이 '속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개성상인의 상도'(박연경, 「박완서의 『미망』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3, 69면)라고 하였지만 이는 컨텍스트 차원에서 그럴지는 몰라도 텍스트 차원에선 작중인물 전처만이나 태임이 온전히 순수한 상도의 실천자인 것만은 아니어서 더욱 세심한 독법을 요한다. 전처만이 아들 이성이가 교활한 장사꾼이 될까 봐 일부러 삼포를 맡겼으나 기어이 일본인들과 어울려 인삼밀수에 관여하였다고 비난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젊은 날의 전처만이 청국과의 인삼 밀수출로 돈을 번 것과 이성의 축재행위가 굳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만, 산후조리도 못한 며느리를 민란의 흉흉한 소문을 빌미삼아 돈을 올리기자며 흑사해 끝내 자진케 하는 비정한 여성이다. 태임도 경우가 종상의 옥살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친일파 박승재에게 호화를 극한 인삼장에서 인삼탕 등으로 호강시키는 걸 두고 “인삼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³⁴⁾라며 불쾌해 하면서도 결국엔 승재를 만나러 간다.

이렇듯 인삼을 위시한 개성풍물을 예찬한 나머지 개성을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두는 듯한 서술자와 인물들의 의식이 섬처럼 고립된 배타적 서사공간을 자초한 것이다.

2.3 인삼과 여성의 호몰로지

『미망』은 ‘인삼 내러티브’라고도 할만큼 작중인물들은 인삼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기도 한다. 서준섭도 인삼을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보았듯이³⁵⁾ 인삼은 개성상도와 더불어 스토리라인을 이끄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이다. 이성이 자본금 회수기간이 긴 인삼농사보다 인삼유통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자, 전처만은 “이건 우리 가업이다.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삼포를 처분할 수 없다.”³⁶⁾고 단호히 말한다. 개성에서도 삼포가 가장 널리 분포돼 있는 셋골 소작농 출신에서 거부가 된 전처만에게 인삼농사가 상업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삼 서사체담계 『미망』은 인삼의 특성과 그 재배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인삼의 상징성을 섹슈얼리티와 민족정체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즉 인삼은 재배기간이 5~6년 걸리는 경제성 높은 특용작물로서 신비의 영약으로 전해져 왔으며 연작을 피하므로 적어도 한 번 수확한 땅은 십 년

34) 『미망』, 하, p.387.

35) 서준섭, 「개성상인 또는 근대적 시민을 찾아서」, 『현대문학』(1997.1월호), p.322.

36) 『미망』, 상, p.64.

이상을 조, 보리 등, 인삼 이외의 농작물을 심다 그나마 인삼재배를 1~2년 앞두고는 휴경지로 땅의 정기를 축적해야 비로소 좋은 삼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인삼 중에서도 최상품은 남성의 양기를 북돋운다고 알려진 '기생삼'이다. 인삼은 그 생김새가 사람, 특히 여성신체와의 도상적 호물로지 때문에 여성을 은유하기도 하고 '고려인삼'이 가리키듯 민족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인삼은 외관상 에로틱한 여체를 환기시키는 데다가 '기생삼'의 명칭에서 보듯 남성의 정력제로도 큰 효용성을 갖는 약초이다. 청인들은 아편으로 끊은 몸엔 홍삼이 직효라고 해독제로 애용하는가 하면 왜국에선 홍삼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인삼은 금이고 목숨이며 영물이었다.'³⁷⁾

인삼이 여성을 비유하는 텍스트의 다른 예는 아침 일찍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백삼을 벗기다 돌아오는 태임의 몸에서 인삼냄새가 날 때, 박승재가 그녀를 한 포기 인삼이라고 느끼는 대목이다. 승재는 무명옷에 머리수건을 쓴 태임에게서 그녀의 타고난 미모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친구 종상에 대한 질투심의 망상이 씻겨지는 것 같아 그가 고발한 종상의 옥살이를 감형시켜 달라는 태임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인삼의 신통력이 인간의 악마성까지 정화시킨 것이다. 또한 태임의 인삼에 대한 외경은 인삼 물신주의로까지 발전한다.

열 두 대문 별당아씨의 열 두 폭 치마를 벗기고 단속곳을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다시 속곳을 벗기듯이 가만가만 부드럽게 그러나 숨가쁘게 싸고 싼 걸 한 겹 두 겹 벗기자 마침내 수줍게 두 다리를 낀 백삼의 흰 살결이 드러났다. 아니 아주 알몸은 아니었다. 마지막 속적삼을 움켜쥔 여체처럼 상체이다 눈부신 금빛 띠를 두르고 있었다.…… 금띠에는 고려인삼(高麗人蔘)이라는 상표가 들어있었다. 태임이는 삼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을 앞뒤로 뒤집어보면서 찬탄을 금치 못했다.³⁸⁾

37) 『미망』, 하, p.385.

38) 『미망』, 하, p.107.

윗글은 인삼의 심미감을 매우 관능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에 다 '고려인삼'이란 민족정체성까지 더하면 인삼=여성=나라의 등식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삼 수난은 곧 여성의 몸이 훼손되는 것이며 만국의 고통에 대응된다. 태임이 만주의 태남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면서 인삼에 대한 '신성한 제사'라고 말하는 것도 나라의 독립이 인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삼이 민족정체성과 연관되는 또 하나의 예가 영빈관 '인삼장'에 동원된 기생향응 사건이다. 해방 후 개성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행정 공백상태에서 전 개성유수가 소련군 장교를 대접한답시고 인삼장에서 연회를 베풀어 거기에 동원된 여성들이 밤새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 『미망』에서 성/계급/인종이 중층적으로 겹쳐진 점에서 가장 국제적인 이 극적인 사건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논의 대상인데³⁹⁾ 광복이 되어도 또 다른 제국주의 점령군 장교들을 위한 성적 희생물이 된 '인삼장' 기생들의 고초는 나라가 힘이 없어 인삼을 지켜내지 못한 것과 유추관계를 이룬다. 이밖에도 훼손되는 여성의 몸은 특유의 크로노토프로 『미망』의 여러 곳에 제시되는 바, 머릿방아씨의 자궁탈루와 달래의 반편이 딸 경순의 출산, 그리고 경순의 죽음 등이 그것들이다. 머릿방아씨는 친정 나들이길에 마중나온 머슴 재득의 정강이가 '거목의 뿌리처럼 억세고 펄펄 뛰는 송어처럼 싱싱해서'⁴⁰⁾ 그에게 매혹 당한 나머지, 재득을 유혹해 사생아를 임신하게 된다. 그녀는 임신을 숨기고 피접을 빙자하여 친정으로 갔으나, 주변의 소문을 우려한 친정어머니 박씨는 딸로 하여금 여우골의 흥가에서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보다 모진 목숨으로 짐승처럼 흙을 후벼파며'⁴¹⁾ 아기를 분만하게 한다. 머릿방아씨는

39) 이 부분은 필자의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트랜스크리티시즘」(제48차 전국 국어국문학회에서 발표, 2005.5.29)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40) 『미망』, 상, p.117.

출산 후 첫국밥도 못먹고 구정물만도 못한 간장을 맹물에 타서 입안과 창자를 축였다고 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 홍씨에게 불려온 그녀는 시어머니의 간계로 무거운 돈케를 옮기다 자궁이 몸밖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한다. 그녀의 자궁탈루인 ‘염불 빠지다’는 남성들에게는 불가해한 독특한 여성언어로서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 육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염불 빠지다’는 J. 크리스테바의 용어로 소위 압제선(abjection)⁴²⁾인데 이 말을 ①해주택이 종상에게, ②입분이가 태남에게 들려줘도 이들 남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한다. 마치 혜정이 여란에게 기미년 독립만세를 부르다 투옥된 여학생의 옥중고문이 남학생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로 여성의 월경을 거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남성과 소통할 수 없는 여성신체의 고유성이 인정되고 여성언어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페미니스트 L. 이리가라이의 말을 뒷받침한다.⁴³⁾ 이러한 자궁의 크로노토프에는 복중 아기의 성장 묘사, 유산 기도, 과도한 식욕, 출산 장면 등이 있고 머릿방아씨와 태임의 임신중 모성 비판도 있다. 머릿방아씨는 복중 태아를 다음과 같이 느낀다.

아씨의 몸이 병들고 죽어가건 아랑곳없이 욕심껏 피와 살과 뼈를 착취하다가 제 몸을 살찌우고 기운을 더해 가는 뱃속의 것은 이미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아씨는 생각했다. 같은 몸끼리 서로 그렇게 무자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⁴⁴⁾

41) 『미망』, 상, p.331.

42) Julia Kristeva, *Power of Horror*, Columbia Univ., Press, 1982, p.15.

크리스테바에게 공포와 진저리는 압제선의 두 번째 형태로 이것들은 상징계의 순조로운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43) Luce Irigaray, *Speculum*, (trans), Gillian G. Gill, Cornell Univ. Press, 1985, pp.166~167.

44) 『미망』, 상, p.54.

태임도 아들을 임신했을 때의 임신 혐오감과 분만의 고통을 털어놓는다. 태임은 우물의 두레박 끈이 구렁이로 변하는 태몽을 꾸고 나서 아들 태몽임을 확신하면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딱히 아들을 바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꿈은 태임이 어머니가 빠져 죽은 우물꿈을 자주 꾸다 그 날은 동해랑이 아닌 서해랑집 우물꿈을 꾸는 것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전씨 아닌 이씨의 혈통을 상징함과 더불어 죽음=생명이란 양가적 여성원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기가 에미몸을 짓으면서 가하는 아픔은 인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이었다. 너 죽고 나 죽자! 마치 원수와 피투성이로 싸우듯이 이를 갈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나서야 아기는 에미로부터 분리되었다.⁴⁵⁾

윗글은 태임이 가뜩이나 무더운 칠월 칠석날 아들 경우를 낳는 장면이다. 위 인용문들에서 보듯이 아기에 대한 태임모녀의 태도는 생명체의 속성이며 생명과 모성에 대한 낭만적 신비화가 아닌 여성 스스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더 소중하다.⁴⁶⁾ 『미망』이 『토지』, 『혼불』에 비해 여성의를 구체화시켰다는 평가⁴⁷⁾를 받는 것도 이런 데 있다. 내임이 혹독한 산고를 겪을 때나 점통같은 더위 속의 산후조리에 고역을 치를 때 종상은 서울에 가 있어 부재중이었고 그가 귀가한 것은 가을이 되어서였다. 텍스트에 종상의 서울 나들이가 그다지 긴요한 일로 명시되지 않아 아기낳기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인삼에 이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여성 수난의 대표적인 사례

45) 『미망』, 하, p.38.

46) 이같은 임신의 고통은 이미 1920년대 나혜석의 수필 「똥된 감상기」에도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47) 김경수, 「한국 여성역사소설의 구조와 상상력」 『어문학』 제74호(2001), p.155.

는 달래와 경순의 죽음이라 할 것이다. 달래가 반편이팔 경순을 낳은 것도 임신중 청산리전투에 대한 일제의 보복으로 아버지인 독립투사 진동열 선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결과였다. 활달한 신여성 독립운동가였던 달래는 실성한 몸으로 정신지체아 경순을 낳고, 아기도 살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요절하자, 마침 규서와의 불상사로 이혼하고 만주에 피신해 왔던 규서댁 혜정이 경순을 지성으로 보살피게 된다. 혜정은 총독부 고급관리 박승재의 양자 규서의 본처였으나 규서가 그 집에 하숙하던 태임의 딸 여란을 성추행하던 날, 여란을 대신해 살인죄를 뒤집어쓰면서 그 일로 두 여자는 만주의 태남에게로 갔고 달래가 죽은 다음, 혜정은 마도섬의 중매로 태남의 후처가 되었던 것이다. 만주에서 태남과 종상이 박승재의 모략으로 체포되자, 귀국한 혜정은 송도 근교 셋골에 정착, 인삼농사에 자연스레 적응해 태임을 기쁘게 한다. 경순의 죽음 역시 식량 공출과 정신대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다. 쌀공출문제로 면서기와 순사들이 마을을 순찰하다 경순을 발견하고 성적 호기심을 보인 후부터, 혜정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지낸다. 다시 순사들이 마을에 나타나자 혜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경순을 같이 낚가리 속에 숨긴다고 숨긴 것이 그만 그들이 꼭씩인 줄 알고 쇠꼬챙이로 찢러 경순은 내장이 파열돼 즉사한다. 그리하여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일본 제국주의자건, 소련군 장교이건,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한 몸의 훼손은 계속되고 이어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한다. 먼저 월남한 경우와 경국이 목숨을 걸고 강화도에서 밤배로 개성에 건너와 셋골 묘삼을 얻어가려 하지만 태남은 개성만의 인삼을 고집하며 두 사람의 간청을 거절한다. 이를 보다 못한 혜정은 “흠쳐가.”라는 단호하고도 짤막한 말로 묘삼의 강화도 반출을 돕는다. 혜정의 결연한 한 마디가 사태를 일시에 해결해 서사적 분기점이 되거니와 텍스트에서 인삼=여성=민족의 등식관계로 볼 때, 혜정의 묘삼

유출 방조는 ‘인삼 시집보내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여성의 한 평생이 결혼으로 단절과 이식의 일생이라면, 강화도에 옮겨진 인삼은 여성적 삶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태남이 어둠 속으로 묘삼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와 경국의 등에 대고 짐짓 헛돌팔매질을 하는 것이나 태임이 그 말을 듣고 예쁜 미소로 임종하는 것에서 인삼의 재배지가 확산되라는 결말이 예비되고 있어 대모신다운 태임을 비롯, 혜정도 인삼보존과 민족의 자궁으로 손색이 없다.

2.4 여성에 의한 가업 계승

『미망』은 인삼재배와 개성상도라는 가업이 조부→손녀에게로 계승된 여성가족사소설이다. 그때/지금의 시간대립에서 동해랑 주인 전처만이 인삼농사와 유통, 판매로 개성 거부가 되어 활동하던 ‘그때’에 비해 그 자식세대들이 가업을 이어받은 ‘지금’은 인삼 독점권을 둘러싼 정부와 상인들의 갈등, 상인들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대립, 개성상인들 내부의 분열, 민족 분단 때문에 급기야는 개성인삼의 강화도 반출이라는 모험을 감수하게 되는 위기상황에 이른다. 하지만 『미망』은 가문유지를 혈통이 아니라 가업계승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실험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능력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본고장인 서구에서도 가문계승이 가업계승과 분리되는 경우란 그리 흔치 않다고 한다. 더구나 페미니스트에겐 자본의 권력이야말로 남성 가부장사회의 알레고리이다. 하물며 겨우 개화가 시작되던 20세기 초엽이라는 작품배경을 고려할 때, 가업을 손녀딸 태임이 이어받았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 경우라고 하겠다. 『미망』에서 태임의 가업계승이 그녀의 개인적 기질과 자발적인 성취동기

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태임은 조부에게 “제 팔자는 남이 만들어 주는 대로 따르기가 싫습니다.”⁴⁸⁾라며 신식교육을 소원했으나 어머니의 불미스러운 죽음과 거기에 충격받은 조부의 죽음 이후 몰락한 동해랑을 지키며 종상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대리만족에 그친다. 전처만이 죽고 나서, 태임은 가부장사회의 통념상 양자 분열이로 하여금 전씨의 상징인 동해랑을 상속케 한 삼촌들의 처사가 당시의 법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 자신이 진정한 상속자임을 자처한다. 결혼한 태임이 분열이가 방치한 동해랑에 애착이 많은 것도 동해랑의 주인의식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엔 그녀가 전처만의 상흔을 계승할 인물로 생각하는 동네사람들의 기대도 한 몫 한다. 동해랑은 서해랑, 적선정과 더불어 『미망』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집의 크로노토프인데 집은 박완서 소설의 특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프이자 상징이다.⁴⁹⁾ 앞에서도 언급했듯 집은 가족사소설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장소⁵⁰⁾로서 ‘안사람’인 동시에 ‘바깥사람’인 여성의 존재론적 위상 때문에 여성친화적 공간이면서도 여성을 소외시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우선 동해랑을 보자.

개성상도의 본거지 동해랑은 개성부자들의 집단 주거지에 위치한 전처만의 저택이다. 말이 저택이지 개성상인들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동해랑은 外貧內富로 바깥채는 초가집으로, 안채는 드높은 기와집으로 격식을 갖춘 정도였다. 동해랑은 개성 中人の 집이어선지 『삼대』나

48) 『미망』, 상, p.97.

49) 박민숙, 「박완서 소설 『미망』 연구」(서강대 석사논문, 1998), p.3.

50) 집은 가족의 탄생과 죽음이 있는 곳 가족을 결속시키는 각종 의례가 행해지는 곳이며 가부장사회에서 집=여성이란 젠더공간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여성을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는 남성권력자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공간인 것이다.

류은숙,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연구」(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10.

『토지』에서 신성시되던 사당이 없다. 대신 그 집의 영역은 집안의 발복처인 우물이다. 우물은 태임의 조모 홍씨가 물꿈을 꾸고서부터 살림이 붙어난 데다가 우물맛이 좋아 동해랑의 자랑거리였으나 머릿방 아씨가 투신자살함으로써 가문 몰락의 시발점이 된다. 며느리의 시신을 보고 전처만은 실신하지만 태임은 담담한 태도로 우물 속 어머니의 시신은 '옥색치마가 꽃 피듯' 물위로 떠올라 사뭇 처연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몇 차례나 반복제시되고 있으며 훗날 태임이 종상과 결혼하고 서해랑으로 떠날 때도 그녀는 어머니의 주검에 대한 환상에 잠겨 잡초 무성한 우물터를 서성거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동해랑은 출가외인 태임에게 내 집이면서 내 집이 아니다. 경계공간인 것이다.

다음, 서해랑은 태임과 종상의 신접살림을 위해 새로 지은 집이었다. 태임은 결혼 후 서해랑에 살면서 사업에 전념해 이 집은 그녀의 새로운 사업장이 된다. 사업가 태임은 똥 푸러 온 사람과 계산을 다투다 손가락에 똥물을 찍어가며 날뛰고, 백삼 벗기는 일꾼들의 품삯 분배에 자투리가 있으면 성냥개비수로 나누는 정확성에서 비단실 한 올을 따지는 전처만을 빼 닮은 치부숨씨를 발휘한다. 그녀는 주부가 물려준 돈케를 털어 이성이가 팔아버린 셋골삼포를 되사들이고 인삼제품 개발로 수익성을 높이는가 하면, 판로개척에도 활발하게 움직여 명실공히 전씨가의 가업을 계승하게 된다. 이런 그녀를 쌍두마차처럼 돕는 사람이 남편 종상과 이부 동생 태남이다. 종상이 독자적으로 양말 공장을 운영하면서 태임의 인삼 유통, 판매, 금융쪽을 돕는 사람이라면, 태남은 *인삼재배 기술자 재득의 아들답게 인삼농사꾼으로 태임의 삼포를 관리하며 끝까지 개성에 남아 태임의 임종을 지킨다. 종상은 개성 향반 이생원의 손자로 집안이 망해 일찌감치 부성이네 청포전에서 장사를 배우다 해주댁의 삼포머슴이 된 터였다. 그는 태임의 도움

으로 서울로 가게 되어 신학문을 접하며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태임을 깊이 연모했지만 그녀의 결혼조건이 태남을 데려다 키우는 것이어서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다. 그의 이재능력도 남못지 않았지만 그는 태임을 도와 전씨 가문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태남은 머릿방아씨와 재득과의 불륜의 천출임에도 불구하고 전처만에 의해 '관옥같은 아이'라고 호명된 인물로, 끝까지 인삼지킴이로 남았으니 전처만이 예견한 집안의 '관옥'51)이었던 셈이다. '관옥'이란 전통사회에서 고귀하고 늠름한 남자를 일컫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표상이니 이 말이 태임에 의해 텍스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여란을 '남복'을 입혀서 키우겠다고 한 말과 함께 그녀의 남근 선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적선정은 서울 박승재의 집인데 이곳은 위선적이고 권력지향의 친일 개화꾼의 공간을 대표한다. 빈한했던 박승재는 총독부 고급 관리로 출세했지만 친구 종상이 미모와 부를 겸비한 태임과 결혼하는 것을 시기해 종상을 파멸시키려고 결심, 밀정 마도섭으로 하여금 종상을 미행하게 한다. 때마침 종상이 만주에서 태남을 도와 독립군자금을 건네다 마도섭에게 발각되고 종상은 헌병에게 체포, 수감된다. 그레 놓고 승재는 태임의 통사정에 종상의 출옥을 앞당기도록 해준다. 승재의 양자 규서 역시 그 집에서 하숙하던 여란을 겁탈하려는 호색적 남성이다. 악의 소굴같던 적선정을 벗어나는 사람이 승재의 며느리 혜정이다. 여란을 통해 신여성으로 거듭나는 구식여성 혜정은 박승재와 규서 부자의 친일행각과 탐욕에 반기를 들고 이혼을 요구, 자유를 선택한다.

이같이 『미망』에는 집(자궁을 포함한)과 가족이 주체적 여성성의식의 구현 장소가 되고 있다. 집에서 자기소외를 의식한 찰나, 새롭게 전신

51) 김열규, 「집안내림 이야기로서 갖추고 있는 전혀 다른 개성」, 『문학사상』 (1997.3월호), p.100.

하는 여성의 예를 몇 가지 더 들자면, 종상이 첫딸 여란을 낳고 개성 산속대로 여아에게 금줄 대신 쓰는 '有産忌不淨'을 써붙였던 것을 그가 출타한 사이 태임은 아들을 낳았을 때 쓰는 '有産慶忌不淨'으로 다시 써 붙여 남편에게 딸의 출생을 경사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어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여란이 서울에 있는 여학교로 진학하려 했을 때, 종상이 여자란 시집가면 자연히 집을 떠나는 건데 구태여 서울로 진학해 부모곁을 떠나려 한다고 비난하자, 태임은 '시집가는 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집을 찾아가는 것'⁵²⁾이라고 말함으로써 시집 = 여임이란 관습적 인식을 바꿔 '제 집 찾기'라는 개인화(individuation)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 등이다. 또 머릿방아씨는 재득을 유혹해 태남을 낳고 그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하는 자율적 섹슈얼리티의 실천자이며 그녀의 투신자살은 시어머니 홍씨의 계략에 침묵(죽음)으로 저항한 셈이어서 단순한 고부갈등의 희생제물만은 아니다. 타인과는 물론, 가족내의 애증조차 양갈음으로 보복하는 자업자득 악순환의 고리가 『미망』의 인물구성상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혜정처럼 상철의 본처도 시대를 상대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 뒤, 동경까지 여란을 찾아와 이혼소식을 알려주면서 상철과 유학생 사회를 싸잡아 신랄하게 비난해 여란 부부를 부끄럽게 한다.⁵³⁾ 그러므로 『미망』이 가부장사회의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여성들의 내면적 갈등과 돌파는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은⁵⁴⁾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미망』의 능동적이고 당찬 여성들은 민족운동에도 여성다운 지혜를 발휘한다. 가령, 종상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개성상인들의 금융조합을

52) 『미망』, 하, p.115.

53) 여란도 유부남 상철과 결혼함으로써 태임과 종상을 실망시켰지만 여학교 시절엔 항일동맹휴학 주동자였던 때도 있었다.

54) 박연경, 「박완서의 『미망』 연구」, (연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결성한다고 했을 때, 태임이 조합 발기문을 여성도 알아볼 수 있는 언문으로 쓰는 게 어떠냐고 건의한다든가, 주부의 소박한 초 한 자루라도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나라의 독립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은 거창한 민족운동보다 더 실효성있는 여성적 대안이다. 신여성 달래는 만주에서 아버지 진동열 선생의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태남과 결혼, 만삭의 몸을 낫다는 구실로 위장귀국하여 독립군 자금조달에 그녀의 임신한 몸을 이용한다. 태임은 달래의 해산바라지 기대에 들떠, 배넛저고리며 포대기를 만들었다가 달래의 속셈을 알고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기용품 갈피를 헤집어 돈과 금붙이를 넣어준다. 태임은 또 왜정 말기 식량사정이 나빠지자 서울 사는 후성이네를 위해 쌀바지를 꿰매 켜켜이 쌀을 넣어 입고는 어기적거리며 건다 서울역에서 경찰에게 발각돼 유치장신세를 지기도 한다. 여성의 육체를 자궁이나 에로스 말고도 이렇게 활용하는 여성인물들의 순발력이 놀랍다. 그것은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⁵⁵⁾의 다양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즉 여성의 몸에 위장의 젠더공간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요컨대, 『미망』의 여성인물들은 아니무스적 여성이 많은데 이것이 나쁠 것은 없다. 원래 아니마/아니무스는 한 인간의 양면성인 까닭이다. 문제는 그것이 여성의 긍정적인 자아실현일 수도 있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우려하듯 민족주의 서사가 민족 수난기에 민족과 젠더의 헛돌기로 여성주체성이 비늘처럼 민족에 겹쳐 민족의 자궁 따위, 모성신화 속에 묻혀 버리게 됨을 유념할 일이다. 근대화와 전통, 양자 모두 민족성을 여성에게 더 강요함으로써 가부장제가 강화되기도 했기 때문이다.⁵⁶⁾ 태임만 하더라도 조부의 가업을 계승, 몰락한 동해랑을 일으키

55)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의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67~124.

56) F.파농이 지적하듯 알제리 여성들의 베일은 제국주의 남성 기획과 서구 식민주체들의 관음증적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여성 정체성(민족주의)을 지키는 수

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가 하면, 셋골로 몰려든 일가붙이를 거두는 등, 가문과 민족지킴이의 대모신답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가부장적 이념을 내면화하면서 조부 전처만과의 동일시를 반복, 남성 섹슈얼리티의 상징인 '완옥'을 되풀이하며 딸 여란을 낳고 종상에게 '우리 아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난 우리 아길 그런 불쌍한 조선 여편네를 만드느니 차라리 남북을 시켜 키웠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자기 부정이며 팔루스 선망에 다름 아니다. 종상과의 부부생활에서도 태임은 남편에게 꼭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종상이 가정의 안락 속에 처삼촌들의 사업상 자문역할로 행동반경이 축소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이는 아내라기보다 자식을 걱정하는 무성화(asexuality)된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란이 규서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하다가 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자, 태임이 '순결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것도 그녀가 여전히 남성중심적 순결이데올로기의 모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혹은 종상이 청혼하러 왔을 때나, 인삼 일꾼 산식이 백삼을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제의를 하러 왔을 때도, 그녀는 오만한 태도로 상전/하인의 계급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일꾼들과 백삼 벗기는 품앗이 두레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계급평등을 실천하는 면모도 있다. 태임은 『토지』의 서희와 비슷하면서도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다중주체성과 모순을 지닌 과도기적 여성이라고 하겠다. 『미망』과 『토지』의 여성주인공들의 이러한 형상화는 당대 현실문맥과 소통하려는 작가의식의 소산으로 생각되지만 서희형, 태임형이 우리 문학 속 젠더사의 중요한 수확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미망』의 당당한 여성인물들에 비해, 그들의 상대인 남성들은 상대

단이 되기도 하였지만 자국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남성의 횡포를 나타내는 전통적 기표이다.

적으로 우유부단하거나 여성의 보조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종상은 의병을 결성해 민란을 주도해 놓고도 자기네가 습격하기로 한 정보를 태임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분열의 독립운동 참가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란의 항일 동맹휴학사건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인물이며 재득은 머릿방아씨의 도피제의를 거절하곤 혼자 잠적했다가 그녀가 죽은 뒤, 셋골로 돌아와 호열자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서야 아들 태남과 회한에 찬 부자상면을 한다. 재득의 임종 자리인 여우골 폐가는 태남이 태어난 장소여서 탄생=죽음이란 변화와 교체의 우주적 리듬을 체현한 바흐편적 양가성의 공간이다. 태남은 진달래를 사모하면서도 망설이다 결혼하고, 혜정과 의 재혼도 마도섭의 중매와 혜정의 적극성에 힘입어 성사된다.

위에서 여성가족사소설 『미망』의 크로노토프를 주로 서술층위와 플롯층위에서 검토해 보았다. 같은 여성가족사소설인 박경리의 『토지』가 길의 호돌로지(hodology)라면, 박완서의 『미망』은 기억의 디스크로서 기억의 서사적 의미는 이 작가의 고향 개성에 대한 토포필리아적 향수이자 그것이 파행적 한국근대사를 증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특히 젠더사적 측면에서 『미망』은 『토지』에 비해 얘기시간은 짧지만 단호하고 긍정적인 여성인물들이 많이 입상화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3. 맺음말

본고는 박완서의 『미망』의 크로노토프를 검토한 것이다. 『미망』은 인삼 생태주의와 개성 상도를 스토리축으로, 여성에 의한 가업계승이

중심서사인 여성가족사소설이다. 이 작품도 가계연속성에 대한 욕망이 민족주체성 욕망과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토지』, 『혼불』과 공통된다.

『미망』은 서술층위에서 중형무진으로 이동하는 초점주체의 서술독백과 속도감있는 문장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기억의 디스크스이며, 플롯층위에서 갈등의 서사소로서 분풀이, 양값음이 개성 중인들의 속물성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개성상혼이라는 지역주의와 서사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섬'의 크로노토프를 이룬다.

또한 『미망』은 인삼의 크로노토프를 묘사한 인삼 서사체로서 인삼 생태주의 비평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망』은 인삼의 상징성을 섹슈얼리티와 민족정체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삼은 그 생김새가 여성신체와의 도상적 호몰로지(homology)로 여성을 은유하기도 하고 '고려인삼'이 가리키듯 민족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망』은 가문이 혈통이 아니라 가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여성가족사소설과 변별성을 갖는다.

□ 텍스트

박완서, 『미망』 상, 하권, 세계사, 1997.

□ 참고문헌

- 김경수, 「한국 여성역사소설의 구조와 상상력」, 『어문학』 제74호(2001), p.155
 김미현,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페미니스트시학」(이화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67~124.
 김열규, 「집안내림 이야기로서 갖추고 있는 전혀 다른 개성」, 『문학사상』(1997.3월호), pp.93~101.
 김열규, 「토포스를 위한 새로운 토폴로지와 시학을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호(2003.9월호), pp.6~19.

- 김윤식, 「박완서론-기억과 묘사」, 『작가와와의 대화』(문학동네, 1996), pp.33~53.
- 류은숙,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연구」(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10.
- 박민숙, 「박완서 소설 『미망』 연구」(서강대대학원 석사논문, 1998), p.3.
- 박연경, 「박완서의 『미망』 연구」(연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p.69.
- 서준섭, 「개성상인 또는 근대적 시민을 찾아서」, 『현대문학』(1997.1월호), p.322.
- 신덕룡, 「고립된 폐쇄주의, 그 비극적 결말」, 『동서문학』(1991.1월호), pp.132~152.
- 안숙원, 「전화텍스트와 역동적 수화자」, 『현대소설시점의 시학』(새문사, 1996), p.590.
- 안숙원, 「바흐전, 생태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12호), p.27.
- 안숙원,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서사시학 (1)」,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3), pp.208~212.
- 이동하, 「근대화의 문체와 소설적 진실」, 『작가세계』(1991.봄호), pp.89~96.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연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pp.7~8.
- 이선옥, 『한국소설과 페미니즘』(예림기획, 2002), p.194.
-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1991.봄호), pp.53~64.
-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집』(1994), pp.643~667.
-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실천문학』(2000.가을호), pp.166~167.
- 지라르, R, 김치수 역, 「삼각형의 욕망」,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사, 1981), p.189.
- Julia Kristeva, *Power of Horror*, Columbia Univ., Press, 1982, p.15
- Lawrence Buell, *Environmental Imagination*, Harvard Univ. Press, 1996, p.97.
- Luce Irigaray, *Speculum*, (trans), Gillian G Gill, Cornell Univ. Press, 1985, pp.166~167.
- M.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pp.84~250.
- M.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 & trans), Caryl Emerson,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197.

Ruth Ginsburg, 'The Pregnant Text. Bakhtin's Ur-Chronotope : The Womb',
Critical Studies, (ed), Myriam Diaz-Diocaretz, Amsterdam-Atlanta,
GA, 1993, pp.166~175.

S.S. Lanser, *The Narrative Act*, Princeton Univ., Press, N.J, 1981, p.214.

Abstract

A Study on *Mimang* and the Chronotope of the Island

Ahn, Sook-Won

North Korea. Also, *Mimang* has a woman heir (granddaughter) who took over her grandfather's heritage focusing to ginseng and commercial morality of Gaesung. Then *Mimang* showed us an exclusive regionalism. That's why *Mimang* has the closed narrative space of the chronotope like an island on the level of its plot. The chronotope of an island is composed of two types. One is a real island, the other's semiotic island. The former is Ganghwado which is a copy of Gaesung as the place of growing ginseng, and the latter is Gaesung's locality. In a sense, *Mimang* is a ginseng narrative. Ginseng is similar to woman's body and especially 'Koryo Insam (Korean ginseng)' means national identity. It's homology to woman's sufferings and Korean's national identity-crisis in the enlighten period one hundred years ago. The heroine of *Mimang* tried to keep ginseng as a symbol of woman and nationality, and she absolutely finished her task in the text. Furthermore, the novel presented a model of modern capitalism through the handover of a family business by a woman heir in Korea, as well.

key words : M. Bakhtin, Chronotope of the Island, a novel of family history, *Mimang*, a narrative of memory, tophophilia, ginseng, commercial morality of Gaesung.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